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412

2019.7.14

유소년숲 특집호

2019년 주님의교회 표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_ 에베소서 4:15

오늘의 주요기사

2~3면	유소년숲 소개
4~5면	포도나무
6~7면	햇살뜨락
8~9면	아름드리
10면	어와나
11면	어린이제자훈련
12면	공동체소식, 광고

교회일정

7/17(수)	2/4분기 제직회
8/28(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
8/30(금)~31(토)	겨자씨인도자수련회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이 아이들이 맞을 하나님 나라

유아숲 특집으로 꾸몄던 지난 408호에 이어 이번 호는 유소년숲 특집입니다. 포도나무(초등 1, 2), 햇살뜨락(초등 3, 4), 아름드리(초등 5, 6), 어와나, 어린이제자훈련(초등 3~6)으로 구성된 유소년숲은 교회의 개구쟁이들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맞을 교회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 (마 18:3~5)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소년숲의 교역자와 교사, 아이들이 귀한 글과 사진을 보내 주셨습니다.

함즐함울

유소년숲 특집 | 유소년숲을 소개합니다

상상력을 통한 신앙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요!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모던 시대를 맞아
주님의교회 유소년숲에서는
인식의 상상력,
공감의 상상력,
비전의 상상력을 키워
신앙 안에서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CEV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들어가는 말

현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의교회 유소년숲에서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대로 키워낼지 고민하며 신앙 양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소위 초융합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다양한 요소들과 영역들이 서로 연결되고 융합되는 시대입니다. 신앙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소년숲에서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다양한 삶의 차원들을 건강하게 통합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융합을 통해 새로움이 창조된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요청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소년숲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선도해 가기 위해 하나님의 선물인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감으로 이 땅에 의와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해가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길러내고 있습니다.

유소년숲의 CEV 커리큘럼

유소년숲 신앙교육의 목적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 안에서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제자,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소년숲에서는 전인적인 신앙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세 가지 상상력을 통한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이라는 틀로 정리해서 비전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 교육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깨달음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깨달음의 순간에 작용하는 힘, 흠여졌던 지식과 경험의 파편들을 모아서 하나의 의미있는 깨달음과 이미지로 만들어 내는 힘이 바로 상상력

(imagin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상상력을 하나로만 들어 내는 힘 (Einbildungs Kraft)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식 능력인 상상력을 통해 일하십니다. 따라서 유소년숲에서는 신앙 안에서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 세 가지 상상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소년숲 신앙 양육의 기본틀인 세 가지 상상력은 첫째로 인식의 상상력 (Constructive Imagination), 둘째로 공감의 상상력 (Empathetic Imagination), 셋째로 비전의 상상력 (Visionary Imagination)입니다. 이 세 가지 상상력의 첫 자를 따서 “CEV 커리큘럼”(세브 커리큘럼)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구원이라는 의미의 ‘save’와 발음이 비슷하여 보다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상상력은 전인적인 교육을 뜻하는 지·정·의의 세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의와 다른 점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깨달음의 순간에 함께 협력하여 작용한다는 점과 공동체의 영역, 영적인 영역까지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폭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3H(Head, Heart, Hand)인 머리·마음·손을 함께 키워가는 전인적인 신앙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인식의 상상력은 요8:3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에 기초하고 있고, 공감의 상상력은 마 7:12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의 상상력은 마 6:10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식의 상상력은 깨달음의 순간에 지적, 영적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공감의 상상력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함께 깊이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비전의 상상력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하

나님의 형상 (imago dei)을 회복해가고, 공동체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소년숲 신앙 양육의 현장 가운데 이러한 세 가지 상상력 인식, 공감, 비전의 상상력이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식의 상상력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공감의 상상력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비전의 상상력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던 인간 본연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며, 공동체적으로는 의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게 되길 바랍니다.

CEV 커리큘럼의 적용

유소년숲 신앙 교육의 틀인 세 가지 상상력에서 그 양육의 초점은 각각 알아감(Knowing), 되어감(Being), 살아감(Do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감(Knowing)과 살아감(Doing)의 변증법적 프락시스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되어감(Being)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소년숲에서는 신앙 양육에 있어서 앎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며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적용함으로 일상 속에 거룩함을 실현해 가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과 반모임 시간을 통하여 배운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결단하고 다음 시간에 실천한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의 말씀을 세 가지 상상력의 관점에서 보다 깊이 나누며 실천하기 위해 주보에 세 가지 상상력에 기초한 말씀토론나눔 질문들을 제시하고 반모임 시간과 가정에서 나눔을 통해 전인적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기도 합니다. 또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형성해가기 위해 설교 말씀 중에 한 달에 한 구절씩 성경암송구절을 선정하여



주님의교회 유소년부를 맡아 수고하는 교역자가 함께 모였다. 왼쪽부터 유년1부를 담당하는 권효정 전도사, 소년2부를 맡은 김형일 전도사,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문은영 목사, 초등1부를 맡고 있는 황원석 전도사, 소년1부를 담당하는 정호영 전도사, 유년2부를 맡은 권순철 전도사.

설교 전에 말씀 암송을 한 친구에게는 선물을 주기도 하는데 어린이들이 즐겁게 참여합니다. 그달의 성경 암송구절을 주보에 신고 있으며, 냉장고 자석을 분배하여 가정에서도 주보의 암송구절을 냉장고에 붙여 두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암송대회를 통해 마음에 간직한 말씀을 되새기며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골든벨 등의 성경퀴즈 교육활동 등을 통해 즐겁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특히 주중 활동인 어와나와 어린이제자훈련을 통하여 말씀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먼저 말씀이 머리(Head)에서 가슴(Heart)으로 내려오고, 더 나아가 손(Hand)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3H 교육활동을 강조합니다. 예컨대 말씀이 머리(Head)에만 머물지 않고 가슴 (Heart)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큐티와 영성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소년부에서는 말씀을 강조함으로써 인식의 상상력을 함양해 가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공감의 상상력을 키움으로 가정, 교회, 학교와 같은 공동체들을 의와 희락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예배를 강조하며 즐겁게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비전의 상상력을 증진시키

기 위해 인형극과 영화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클럽 활동을 통해 즐겁게 창의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친소”(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등을 통해 전도를 활성화하는 교육활동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소년부의 모든 어린이들을 엄마와 같은 마음, 아빠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신앙 양육을 해나가는 많은 선생님들을 돕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며 살아가기 위한 일환으로 교양양육 심화과정 커리큘럼도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말

이처럼 유소년부에서는 상상력을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 양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다음 세대는 입시

위주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러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신앙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 길러낼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한 응답으로 유소년부에서는 상상력 중심의 CEV 커리큘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의 가치관, 세계관은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큰 마음을 지닌 글로벌 크리스천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한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문은영 목사

유소년숲 특집 | 유소년숲 부서 소개

천방지축 개구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미래예요!

주님의교회 유소년숲은 포도나무(초등 1, 2), 햇살뜨락(초등 3, 4), 아름드리(초등 5, 6), 어와나 불티단(7~9세)과 T&T(10~13세), 어린이 제자훈련(초등 3~6)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도나무, 햇살뜨락, 아름드리는 각각 1, 2부로 나뉩니다. 여기에 유소년숲 각 부서를 소개합니다!

유아숲 특집 | 포도나무 유년1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럭무럭 자라가는 유년1부

예배시간 : 주일 오전 9시 30분

장 소 : 1층 유년부실

예배 연령 : 초등학교 1, 2학년(8, 9세)

유년1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쓰고 나누는 활동들을 합니다. 한 달에 2개의 달달말씀을 외워서 주일마다 강대상에 나와서 외우는 활동, 사순절 말씀 쓰기 활동,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외워보는 활동을 합니다. 또한 주일날 예배시간에 들은 말씀들을 주일날 소그룹 공과 책인 '말씀의 숲'의 가정공과를 통해서 부모님과 나눠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년1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생님과 부모님의 가르침과 기도로 몸과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습니다.



유소년숲 특집 | 부모 간증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아이

처음 유년부로 올라와서 말씀의 숲을 받았을 때 글씨도 빨리 쓰지 못하고 나오는 단어도 어려운 것을 해야 해서 아이를 데리고 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착실한 아이라 시키는 것은 잘했기에 처음에는 숙제라는 의무감에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일에 배운 성경 말씀에 대해 아이와 이야기 나누어보고 아이를 먼저 키우시면서 신앙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신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와 말씀의 숲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배운 성경 이야기에 대해 들어보고 성경 말씀을 번갈아 읽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며 공과숙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아이였는데 한주 한주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아이도 어렵고 하기 싫은 숙제를 하는 시간이 아닌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성경 이야기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열정도 생겨 공과숙제뿐 아니라 달달말씀도 암송하며 조금씩 믿음이 자라고 있는 아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서부터 변화시켜주시고 아이를 키워주고 계심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가정이신 양의 주체임을 잊지않고 앞으로 교회에서 배운대로 가정에서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배정민 어린이 어머니

유소년숲 특집 | 부모 간증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아이와 함께 성경을 펼쳐 놓고 말씀의 숲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고사리손으로 하나하나 찾아가며 하나님을 만나는 인물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알아 가는 귀한 시간들을 체험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기특하고 감사한지요.

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읽고 암송하며 묵상하며 진리를 깨닫는 자녀로 성장해 나가야 함을 알기에 아이와 함께 얼굴 마주 보며 하나님 말씀을 크게 소리내어 읽고 나누어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어렵고 암송이 힘들다고 짜증을 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또박또박 읽어나가는 아이를 바라보며 부모인 제가 더 열심을 내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걸작품으로 저에게 주신 사랑하는 아이가 하나님이 계시는 말씀의 숲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용기 있게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양은우 어린이 어머니

유소년숄 특집 | 포도나무 유년2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워요

예배시간 : 주일 오전 11시 30분

장 소 : 1층 유년부실

예배 연령 : 초등학교 1, 2학년(8, 9세)

유년2부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공예배 3부예배 시작 시간(11:30)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부서입니다. 논리적인 사고를 조금씩 시작하여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글을 읽으며 말씀을 읽는 법을 배워 가고, 율동을 통해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 갑니다.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머리로 성경 이야기를 인식하고 마음으로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느끼도록 기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공과 공부시간을 통해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귀한 섬김, 사랑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워 갑니다. 도화지처럼 순수한 아이들이기에 하나님의 것만 전하기 위해 선생님들과 전도사 모두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 2학년 아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심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유년2부에서는 아이들이 초등2부(초등 3, 4학년 부서)로 올라가기 전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우고 올라갈 수 있도록 상반기 주기도문, 하반기 사도신경 외우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외우는데 지루해 하지 않고 쉽게 순서로 이미지화하여 외울 수 있도록 낱말 퍼즐의 형태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암기합니다. 퍼즐게임을 통한 암기로 평생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소년숄 특집 | 부모 간증

교사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과 같음을 느끼며

저는 올해 처음으로 유년2부를 섬기게 된 교사이자 세 남매의 엄마입니다. 남편과 저는 부모로부터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모태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석도장을 찍듯이 주일에배만 드리는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만은 이런 습관적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며 매주 주일학교에 보냈습니다. 유독 낮가림이 심한 셋째 아이와 함께 유아예배를 드릴 때 교사들의 손길이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세 아이 육아로 선포 교회 봉사를 결심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사역 박람회 때 우연히 유년부 부장님의 설득에 고민을 하게 되었고 마침 낮가림이 심한 저희 막내 아이도 유년부로 진급을 하게 되어 지금이 아니면 봉사의 기회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봉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교사를 시작하기 전 학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교사들이 많은 수고를 하실 거라는 막연한 감사함만을 품고 있었는데, 실제 교사가 되어 가장 처음으로 느끼게 된 것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과 같음을 넘어서 그 부모가 아이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헌신과 배려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는 세심한 부분까지 아이들을 신경 쓰며, 교회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힘들지 않게, 다치지 않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즐거운 체험과 경험을 통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볼 때 이런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이제껏 우리의 귀한 아이들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고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 역시 매주 유년2부의 보물 같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그 아이들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은 아이들로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김현주 어머니

유소년숄 특집 | 교사 간증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되는 교회학교 선생님

삶의 큰 고난 중에 있었던 29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문득 친구와 함께 옛날 고등학생 시절에 다녔던 교회의 학생회 전도사님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수소문한 끝에 청년은 전도사님과 연락이 닿았고, 전도사님께서는 청년을 주님께로 강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청년은 신학대학원을 나와 결국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듣게 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잊고 지냈던 그 옛날 교회 학교에서의 기억이 이렇게도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니 하나님의 방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의 교회학교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분의 포근한 미소가 떠올라 저도 웃음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이를 낳고 기르며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년부 아이들 한명 한명을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매주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바라보는 반짝이는 눈빛들을 보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어른인 선생님들보다도 하나님보시기에 더욱 기특한 대답을 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제가 감동이 되는 날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교제 시간에 아이들과 기도제목을 나누었는데, 놀랍게도 아이들에게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아이들의 일생 동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일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힘든 시간이 닥쳤을 때에 교회학교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회미하지만 확실한 주님의 사랑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최현선 선생님

유소년부 특집 | 햇살뜨락 초등 1부

초등1부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예배시간 : 주일 오전 9시 30분

장 소 : 3층 초등부실

예배 연령 : 초등학교 3, 4학년(10, 11세)

‘햇살뜨락 초등1부’는 초등학교 3~4학년 친구들의 예배공동체입니다. 초등1부에는 개성이 넘치는 60여 명의 친구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열일곱 분의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후 반 반별 모임을 가지며, 말씀을 나누고, 가끔은 공과시간에 맛있는 ‘컵라면 파티’도 합니다. 2019년 초등1부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바울의 ‘여행이야기’와 ‘편지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 예배’와 ‘절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배려해주는 ‘햇살뜨락 초등1부’가 되길 기도해주세요 ^^

하나님 주신 달란트 발견하는 특별한 날, 클럽데이와 달란트예배

초등1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재밌고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클럽데이’! ‘클럽데이’는 초등1부 친구들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 재능, 특기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클럽데이’가 있는 주일에는 야곱에 대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 후에는 ‘스포츠’, ‘먹방(요리 교실)’, ‘보드게임’, ‘이야기책 만들기’활동을 통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지 발견합니다, 또한 일 년에 두 번 ‘달란트예배’를 드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특기를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뽐내기도 합니다. ‘클럽데이’와 ‘달란트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꿈을 발견하고 뽐내는 멋진 초등 1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유소년부 특집 | 교사 간증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어 섬기는 행복한 공동체

2004년 아들 여름캠프에 보조교사로 봉사하다가 지금까지 섬기고 봉사하며 이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15년이란 시간 동안 돌아보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에 더 많이 기도하고 들어본 말씀이 없기에 더 열심히 보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아이들과의 추억 속에 아이들도 자라고 저의 믿음도 함께 자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초등부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초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슬퍼하는 인생을 함께했던 초등부.

한 부서에서 초등 1부, 2부로 나눌 때 나오미와 룻처럼 문현주 권사님과 새로운 초등1부를 적응하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초등1부도 이젠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면서 낯선 곳에 보내졌지만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린 우리 아들이 자라서 돌아온 언어처럼 초등부를 몇 년간 열심히 섬기고 잠시 자기 인생을 위해 다른 곳을

향해갈 때 맘이 아팠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초등부 때를 기억하고 돌아와 찬양팀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 참 멋진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우린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 이렇게 살아있으며 슬퍼하는 사람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황원석 · 오치민 · 문현주 · 정성권 · 조지현 · 고상민 · 박영란 · 이경아 · 이현숙 · 김정민 · 천금미 · 한경희 · 김창희 · 김현진 · 조예원 · 임광희
이런 분들이 모여 초등부를 위해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함께 기도하며 바라볼 때 우린 누구보다 행복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초등1부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봉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그루터기로 내게 주신 날까지 열심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광희 선생님

유소년부 특집 | 햇살뜨락 초등 2부

초등2부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예배시간 : 주일 오전 11시 30분

장 소 : 3층 초등부실

예배 연령 : 초등학교 3, 4학년(10, 11세)

우리 햇살뜨락에는 110명의 3~4학년 어린이와 교사 20분이 계십니다. 막 사춘기의 문턱을 넘어서거나 경계에 있는 어린이들이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하며 들어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든, 지친, 시큰둥한 모습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공과를 하고 나면 그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풀어지는 모습으로 선생님을 대하는 걸 보면 제 마음에도 참 기쁨이 넘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퀴즈를 맞히고 작은 선물 하나에도 좋아하는 순수한 모습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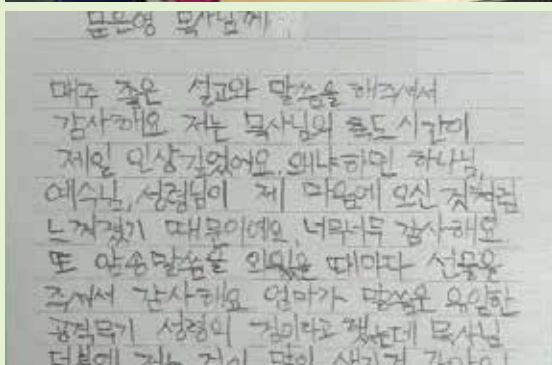
컵라면 하나를 먹으면서도 어찌나 좋아하는지, 고급 레스토랑에 간 것만큼 좋아하며 선생님과 무슨 얘기를 그리 많이도 나누는지, 부모님들은 상상하지 못하실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 같아요.

이 귀한 영혼을 사랑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선생님들께는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훗날 이 어린이들이 교회학교를 아름답게 추억하며 또 그의 자녀를 교회학교에서 양육하고, 이런 일들이 대를 이어 가길 소원합니다.

교회학교 사역을 어렵게 생각하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햇살뜨락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뛰어놀아요. 그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김경희 지도권사



유소년부 특집 | 어린이 간증

채은이네 가정 예배

오늘은 가정 예배를 드렸다.

우리 가족은 먼저 찬양을 했다.

그다음 성경을 펴고 한 절씩 읽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였다.

성경을 읽고 난 후 모르는 것은 서로에게 질문도 하고, 느낀 점, 깨달은 점도 같이 나누었다. 또 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을 위해기도를 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예배를 마쳤다.

때론 내가 참여할 부분이 적어서 좀 지루하기도 하지만 잘 이해가 안 가는 성경 말씀을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가정 예배의 좋은 점 같다. 다음에는 잘 준비해서 가정예배의 시작기도를 드리고 싶다.

교회에서 나누어준 가정예배 책도 예배를 드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교회에서 반별 모임 시간에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시작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짧게라도 용기 있게 기도하도록 항상 격려해 주신다.

선생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친구들이 시작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또 선생님께서는 서로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신다. 그래서 집에서 조금이라도 나눔 것을 가져와서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먹으면서 사랑도 나눌 수 있어서 좋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배운 말씀을 잘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진채은 초등2부 3학년 1반

유소년숲 특집 | 아롬드리 소년1부

소년1부를 소개합니다

예배시간 : 주일 오전 9시 30분

장 소 : 3층 소년부실

예배 연령 : 초등학교 5, 6학년(12, 13세)

아롬드리 소년1부는 12, 13세 초등학생들이 예배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인 만큼 지적, 논리적으로 궁금증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과 찬양, 말씀, 공과를 하나의 주제를 통하여 one-point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말씀퀴즈'나 '주보퀴즈'를 통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1부에는 어린이들로 구성된 '브니엘 찬양팀'이라는 관현악으로 이루어진 멋진 팀이 예배의 찬양을 담당합니다. 5, 6학년 친구들과 함께 해요 ^ ^



유소년숲 특집 | 어린이 간증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기부에서부터 지금의 소년부까지, 주님의교회에서 자라온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저는 기쁨과 감사함 속에 주일을 기다립니다. 소년부 예배실로 향하는 계단을 오를 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제 다리는 그런 제 마음을 잘 알아봅니다. 언제나 예배의 시작은 설렘이 가득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드리는 찬양은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해 줍니다. 그리고 정호영 전도사님이 전 해주시는 설교는 어려운 성경말씀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시고, 깊이 있게 들을 수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며,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파스 한 미소로 맞이해 주시는 권사님들과 선생님들, 쪽스러워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 '나는 예배자입니다'가사처럼 우리 소년부 친구들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저희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있으면 든든한 소년부. 그래서 소년부가 참 좋습니다.

김재원 / 5학년

유소년숲 특집 | 어린이 간증

브니엘 찬양팀을 소개합니다

하늘에서는 해가 빛나고, 땅에서는 소년부가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소년부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소년부에 오면 먼저 아름다운 악기 소리가 먼저 우리를 반길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리의 주인공은 소년부의 '브니엘 찬양단'입니다. 브니엘 찬양단은 아침 연습과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연습을 통해 조금씩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연주도 하고 12월쯤 로비음악회로 교회 로비를 아름답게 꾸밈니다. 이민향 선생님의 지휘와 열심히 연습하는 브니엘 찬양단의 하모니가 잘 어울려집니다. 하지만 소년부에는 기악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부에는 늘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전도사님과 각반 선생님들이 예수님께 찬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십니다. 봄바람이 불어도, 매미가 울어도, 낙엽이 떨어져도 나무가 앙상해져도 소년부는 늘 빛날 것입니다.



배준한 / 6학년

유소년숲 특집 | 교사 간증

어린이의 심성을 배우는 자리

저는 중등부 교사, 반가운학교 팀장을 거쳐서 찬양대를 섬기던 중 지금 이 시대에 놀랍게 변질된 학교 교육의 대안은 교회교육밖에 없음을 깨닫고 올해 초 아롬드리 소년1부 교사로 지원했습니다. 어른들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의 심성을 배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세상의 그 말초적인 '재미'에 비해 조금도 재미없을 것 같은 설교 말씀을 진지하게 요약정리를 하며 듣기도 하죠. 물론 추첨을 통해서 상을 주는데, 요새 먹을 것이 풍부한 이 시대에 하나도 귀할 것이 없는 조그만 과자 한 봉지... 아이들이 그걸 타기 위해서 떠들고 싶은 것을 참고 말씀 요약을 하는 걸까요.

지난 사순절 기간에는 39일 동안 필사하기 숙제를 주었었죠. "날마다 말씀을 필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고 말했더니 그 말을 가슴에 담고 강제성도 없는 교회숙제를 해갔고 활짝 웃으면서 당당하게 제출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다했어!" 이 아이들, 얼

마나 예쁜지요. 이 '어린아이'를 말씀으로 잘 자라게 이끌어주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세상은 점점 사탄의 문화에 장악되어 학생인권조례라는 멋진 말로 포장해서 성소수자, 동성애 등을 정상이라고 가르치며 악한 것을 악하다고 얘기할 때 혐오세력이라고 처벌받게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잘해서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소년 1부 아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이제까지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소년 1부를 10년을 하루 같이 지키신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 언젠가 주님을 뵈을 때 잘했다 칭찬받지 않을까요. 함께 이 칭찬을 받으실 분들은 소년 1부 교사로 자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종은 선생님 / 소년1부

유소년숲 특집 | 아람드리 소년2부

아이들이 직접 예배자로 참여합니다

예배시간 : 주일 오전 11시 30분

장 소 : 3층 소년부실

예배 연령 : 초등학교 5, 6학년(12, 13세)

아람드리 소년 2부는 초등학교 5~6학년 친구들과 함께 하는 부서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말씀과 찬양, 예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직접 예배자로 참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로 구성된 율동팀과 찬양팀, 그리고 아람드리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공부와 2부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표현해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드려집니다.



유소년숲 특집 | 어린이 간증

야외예배

저희는 6/2일에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푸른 나무, 새 소리와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에서 맘껏 뛰어 놀아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에 집중을 잘못해 기도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재미있는 게임도 하였습니다. 첫번째 게임은 2인 3각으로 달려가 긴줄넘기를 하는 게임입니다. 2인 3각 + 긴줄넘기를하고서 먼저 들어오는 팀이 이기는 것입니다. 게임에서 이기면 젤리를 받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피구입니다. 친구들 모두 피구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두 번밖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피구를 하고 나서 간식으로 치킨을 먹었습니다. 놀고 나서 먹는 치킨은 엄청 맛있었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이사를 왔는데 주님의교회에서 드리는 생애 첫 야외예배는 정말 너무 멋지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김다연 / 5학년

유소년숲 특집 | 교사 간증

거룩을 연습하며

올해, 사순절은 소년2부 교사들에게 의미가 더 깊었다. 김형일 전도사님께서 교사들에게 로마서 필사를 권유하셨기 때문이다. 동참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면서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한땀 한땀 바늘로 옷을 깎듯, 한자 한자 말씀을 눈과 손, 마음으로 음미하며 써 내려가니 내 안에 쌓인 죄가 시나브로 씻겨나가는 느낌이였다.

그러면서 내 환경도 달라졌다. TV와 전화 인터넷, 그리고 잠을 줄이며 틈나는 대로 로마서 필사를 하니 주위가 고요해지고 거룩함을 입으며 기쁨이 충만해졌다. 거룩함이란 거창한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로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드러나게 실천하는 것! 이번 사순절은, 소년2부 교사들에게 로마서 필사를 하면서 한결같이 거룩을 연습하는 소중한 시간이였다. 할렐루야!

최미옥 선생님

유소년숲 특집 | 어린이 기도

가정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아람드리 친구들과 함께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문

1. 건강 :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 주세요
2. 화목 : 상대방에게 상처 되는 말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 특히 부모님끼리 유치한 것으로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3. 꿈 : 열심히 노력해서 장래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4. 노력 : 안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게 해주세요.
5. 감사 :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6. 신앙 : 우리 가족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7. 웃음소리 : 우리 가정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8. 친구관계 : 옛 친구와의 관계도 잘 정리하고 앞으로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해주세요.
9. 약속 : 우리 가족이 언제나 약속을 꼭박꼭박 잘 지키게 해주세요.
10. 약속 : 평생 가족이 이혼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더욱 더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람드리 어린이들

유소년숲 특집 | 어와나 불티단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훈련받는 불티단

모임 시간 :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모임 장소 : 3층 소년부실

모임 대상 : 7~9세

불티단은 NIV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영어 단어 앞글자를 딴 AWANA의 한 클럽단입니다. 어와나는 핸드북, 게임, 교제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한 주일 동안 외운 말씀을 확인하고, 규칙을 지키는 게임과 어린이들의 노력을 칭찬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훈련받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티단 친구들은 1년에 두 번 바이블 퀴즈대회와 올림픽대회와 같은 큰 대회를 참석하며 다른 교회와도 교제하며 연합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유소년숲 특집 | 어와나 T&T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어와나 T&T

모임 시간 :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11시 30분

모임 장소 : 다목적교육관 5층

모임 대상 : 10~13세

T&T(티앤티) 클럽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친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T&T 클럽은 진리를 훈련 받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ruth(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Training(훈련)'은 현재 아이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Grace)를 따라가게 만드는 영적인 훈련을 의미합니다. T&T클럽 단원들은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시기로 하나님은 누구인지, 예수님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신앙생활에 있어 많은 부분을 궁금해합니다. 이러한 궁금증에 대하여 성경적 기준을 배우고 구원과 훈련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활동이 진행됩니다.



유소년숲 특집 | 가족 간증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는 가족

저는 어와나 불티단에서 2년차 교사로 섬기고 있는 홍이랑입니다.

저는 작년 어와나 모집 광고를 보았고, "엄마는 안 하고 왜 우리만 시키는 거야?" 이야기할 아이들의 불만을 피하기 위해서 교사로 지원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연년생 두 아들이 불티단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섬기기 시작한 첫 학기는 매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무한한 사랑과 선생님들의 따뜻함은 어느새 저에게도 불티단 활동이 즐거운 일과가 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얼마나 외워 울까, 게임 시간에는 정말 규칙을 지킬 수 있을까, 찬양은 할까, 설교를 듣기는 할까 생각했던 것은 저의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즐겁게 말씀을 암송하고, 대그룹 시간에는 많은 규칙들을 잘 지켜내며, 정정당당함을 배워가고, 눈을 감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큼의 은혜를 받은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불티단을 시작하면서 남편도 함께 하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불티단 선생님들과 나누었고, 기도의 응답으로 작년 9월부터 남편도 교사로 섬기기 시작하며 저희 가정은 가족이 모두, 매주 토요일 아침 교회에 갈 준비를 합니다. 매주 아이들과 전화 심방을 하며, 일상을 나누며, 선생님들과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또 위로와 힘을 얻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저희 아이들과 불티단의 모든 아이들, 어와나 클럽 활동을 하는 아이들, 나아가 교회의 모든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지금의 말씀 교육이 살아가는 데 등대가 되도록 저도 늘 기도하고 기대하며 그렇게 또 다음 불티단 활동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엡 6:14-17)

온 가족이 어와나 불티단에 참석하는 홍이랑, 송성욱, 송민균, 송태균 가정

유소년숲 특집 | 어린이 제자훈련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성숙하는 어린이

모임 시간 : 토요일 오전 10시 ~ 11시 30분

모임 대상 : 3~6학년

어린이제자훈련은 3~6학년을 대상으로 기독교 신앙에 기초를 둔 세계관과 신앙 인격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토요일 10:00~11:30am에 진행이 되며 즐거운 공동체 활동, 찬양, 말씀 나눔, 야외체험 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며 신앙 안에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유소년숲 특집 | 어린이 간증

제자 훈련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저는 주님의 교회 초등2부 4학년 장희원입니다. 작년에 '어린이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선생님, 친구들, 언니들과 여러 활동을 하며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2019년 봄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자 훈련"은 처음 기대한 것과 같이 좋은 선생님, 친구들, 언니들,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을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몇 가지 인상 깊은 시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매주 즐거운 공동체 놀이와 예배,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또 성경암송을 했을 때 선물을 받을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으로 체험 학습을 갔을 때는 아름다운 꽃과 식물 그리고 살아

있는 동물들을 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존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날은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봤는데, 에드먼드라는 소년을 위해 사자 아슬란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났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시아 공원에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했는데 헤어진다 아쉬움과 함께 '제자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씩 만난 것 같지만 매 주 접하게 된 예수님 말씀은 저에게 조금씩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에 제자훈련이 열린다면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장희원 / 초등2부 4학년

2019년 유유청청 여름행사 일정 안내

행사	일시	장소
연향	7월 20일 토 - 7월 21일 주일	교회
유유청청	7월 26일 금 - 7월 27일 토	교회
유년부	7월 26일 금 - 7월 28일 주일	안성녀리굴
초등부	7월 19일 금 - 7월 21일 주일	가람리조트
중등부	7월 19일 금 - 7월 21일 주일	가람리조트
성년부	8월 23일 금 - 8월 25일 주일	안성영락수양관
전국교회수련회	7월 25일 목 - 7월 27일 토	교회

2019 여름성경학교

두손 꼭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교회 유아들은 허락한 어린이들의 메테리요!!!
 아기부, 유아 1,2부, 유아 1,2부, 유치 1,2부, 아가방원, 어리나아방원, 원성미스트로

언제
2019년 7월 20일(토)~
7월 21일(주일)

어디서
주님의교회 본당 및
부속실

제 1 1 차 전국 교회 청소년 수련회

그분의 무대는 끝나지 않았다

라이브

2019.7.25(THU) - 27(SAT)
 주님의교회 (정신여중고내)

KEEP CALM
 AND
SEE
THE BIG PICTURE

주님의교회 비전트리 고등부 여름수련회
 2019.7.19-21 강원도 홍천 가람리조트

2019 PCL KINGDOM VISION ENGLISH CAMP

7.29-8.9 (월-금)
 9AM - 5PM

SHIPWRECKED
 RESCUED BY JESUS

홍천 가람리조트

칠월 십구일 ~
 칠월 이십일일
 (7/19 ~ 7/21)

자만추

영희야,
 뭐 갖고 싶니?

Y.O.U